



감염인 활동을 통해서 보는 ICAAP의 이슈들

글_ 김진섭 · KANOS(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대표

ICAAP

International Congress on AIDS in Asia and the Pacific

제7회 ICAAP(International Congress on AIDS in Asia and the Pacific)에서는 Community 포럼 · HIV Positive 포럼 · Youth 포럼 등, 심포지엄 · 분과별 미팅 · 기술개발워크숍 · 포스터 전시 · 각국 단체 홍보 부스설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카노스(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는 이번 회의에 NGO Exhibition 부스설치 운영으로 참가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이슈가 되는 '감염인 스스로의 예방과 인권, 차별과 편견의 문제'에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감염인의 자활(IGA), 인권(Human Rights), 연대(Network)에 초점을 맞추고, "POSITIVE EFFECT(감염인의 긍정적 효과) · Pottery by PLWHA in Korea 2005"라는 타이틀을 마련하였다.

몇 달 전부터 '도예 Factory'를 통해, 국내 감염인들과 연대, 판매물품을 제작하였고, 각 단체의 지원을 받아 홍보물도 제작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부스를 운영하면서 참여했던 HIV POSITIVE 미팅과 그간 보고 들었던 몇몇 이슈들 중 한국상황에 부합하는 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진단해 보고자 한다.



성적소수자(Sexual minority)와 HIV/AIDS...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

Community 포럼에서도 단연 많은 참가자를 확보한 문제였다. 현재 중국, 인도, 태국 등은 마약(Drug abuse)으로 인한 감염 케이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성적소수자와 HIV/AIDS'는 어느 국제회의에 서건 크게 다루이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동성애를 포함하는 에이즈에 노출된 성적소수자는 인권의 또 다른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편견에 있어, 더 큰 사회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자살, 정신적 혼란, 잠적, 소외 등의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진정한 HIV/AIDS에 대한 예방은 감염인에 대한 지원에서 비롯될 수 있음도 이 커뮤니티 포럼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주노동자(Migrants)와 HIV/AIDS... 상담·의료서비스 尠無, 강제로 추방

여기서 가장 큰 화두는 '이주노동자가 HIV/AIDS에 노출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였다. 실제로 아·태지역에서 이에 대한 상담 및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는 아주 적었으며, 발생 즉시 강제 추방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허다했다. 혹자는 자국의 감염인 문제도 머리 아픈데, 남의 나라 감염인까지 챙기겠냐 라고도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에이즈는 이제 자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임에 틀림없다. 특히, OECD가입국인 한국은 이주노동자의 감염문제에도 깊은 관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일본의 한 의사로부터 한국의 한 불법체류 감염인이 일본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필자는 말 못할 서러움에 잠시 넋을 잃고 말았다.



고베에서의 방콕 선언문 (Bangkok Declaration)

작년 태국 방콕에 모인 감염인들은 장시간의 회의(The 2nd PLWHA Congress)와 결의를 통해, 15차 국제에이즈회의에 '방콕 선언문' (카노스 홈페이지 참조)을 제출했다. 이번 ICAAP의 개최 이전, 그 세번째 회의에서 이 선언문을 기초로 그간의 각국 감염인 그룹의 활동과 경험, 대안 등을 화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긍정적인 것은 각 나라의 감염인 활동이 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나라의 정황에 맞는 이슈들을 제기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치료제의 무상보급과 지원(Free ARV)에 대한 문제와 HIV/AIDS에 대한 편견, 정력적인 활동을 위한 자원책 마련(Fund-raising)의 문제였다. 방콕 선언문의 내용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염인의 활동이 요구되며, 관련기관과 정부로의 설득과 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



GIPA Project (감염인 참여 프로젝트)

카노스는 UNAIDS 산하 UNDP(유엔개발계획)의 GIPA (Greater Involvement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Project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3년의 계약 기간을 종료한다. 이번 ICAAP의 APN+(The Asia Pacific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의 미팅에서 총체적으로 GIPA란 무엇이며, GIPA와 HIV/AIDS의 반응, GIPA의 실제적인 단계, 변화들 등에 대해서 각 그룹별 토론이 이루어졌다.

GIPA란, 말그대로 각 나라의 감염인이 스스로 조직하고 정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단계별 프로젝트다. 많은 나라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각 나라는 GIPA라는 커다란 테두리를 가지지만,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스터플랜을 기획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관련기관의 지원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감염인의 인권을 위해서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감염인의 힘은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는 감염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이지, 감염인 혼자서 만들어 가는 미래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미약하지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7차 ICAAP의 이면을 들여다 보았다. 이번 ICAAP의 주제였던 '과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다양한 포럼과 만남의 장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적 이슈'에 대한 제안은 없었다는 것이다. 카노스는 감염인의 실천과 연대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일본 고베에서의 ICAAP의 소중한 결실은 카노스만의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내 감염인 그룹 및 관련기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이다. 한 발, 또 한 발 앞을 향해 내딛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